

Analysis study on New Deal Policy for young people

Park, Sun Young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Background: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New Deal 2.0 to reform the society, in particular, relieve the inequality issues in education for young people and increase of youth employment became a very important agenda now a days. This kind of social reform is common across the countries during the pandemic. Covid 19 has brought the inequality issues into many areas, and influenced younger generation more heavily and negatively. Young people need more support than any time in order to have safe transition to the adult life. However, this research realised that Korean New Deal 2.0 does not include enough support for young people's preparation for employment. The government only provide employment and economic fund, however younger generation should have opportunity to explore their potentiality and competences Therefore, this research tried to find a good example of support young people to prepare their employment in the UK.

Purpose: Firstly,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New Deal Policy in the UK, and then suggest what can be included in the Korean New Deal 2.0 for the younger generation.

Methodology: This study chose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using document analysis.

Findings: This study found that New Deal in the UK has the different programme according to the different needs of young people. Secondly,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New Deal Policy impact young people's life and showed positive results for the New Deal programmes, Further, during the pandemic new version of New Deal programme called 'Build Back Better'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t means young people are key player for the national refor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nclusions: Therefore, if Korean government want to support young people, they should have different levels of programme in order to meet their all different needs.

Keywords: young people, youth, New Deal policy, New Deal programme, employment, Korea New Deal 2.0

Corresponding Author: Park, Sun You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port Education and Youth Guidanc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1239, Yangjedae-ro, Songpa-gu, Seoul, 05541, Republic of Korea

Email: sypark@knsu.ac.kr

Received: December 15, 2021 Revised: December 28, 2021 Accepted: December 28, 2021 Publication: December 31, 2021

청소년·청년 뉴딜정책

박선영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부교수

배경: 한국의 뉴딜정책이 추구하는 주요 핵심 영역중의 하나인 청소년교육 불평등 완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관심사이다. 코로나 19가 초래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는 모든 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과 청년이 팬데믹 이후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뉴딜 정책에는 청소년 지원을 위한 내용이 교육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의 뉴딜 정책 실현을 위한 영국의 청소년과 청년 대상의 뉴딜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목적: 첫째, 청소년 대상의 뉴딜 정책을 기획하고 실시한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둘째, 이를 통한 한국 뉴딜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로서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영국은 청소년 대상 뉴딜 정책을 통해 대상을 세분하고 실질적인 교육과 직업관련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모니터링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으로 연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청소년은 물론 청년의 고용과 일자리 확보, 이를 위한 구체적 훈련지원과 예산지원을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사점: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뉴딜정책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 청소년 대상 교육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진로지도와 훈련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며, 청년 대상 정책 중에서도 20대 후반 이후의 청년들 대상의 일자리와 경제적 지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하향 확대하여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정책과 사업제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청년, 뉴딜, 청소년 고용 역량, 한국판 뉴딜 2.0

*본 논문은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의 일부임

교신저자: 성명: 박선영

소속 : 한국체육대학교

주소 :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연구동 225호

Email: sypark@knsu.ac.kr

투고일: 2021. 12. 15. **심사일:** 2021. 12. 28. **게재확정일:** 2021. 12. 28. **발행일:** 2021. 12. 31.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020년 7월 대한민국정부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여러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하였다[9].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균형 뉴딜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디지털 뉴딜이란 정보통신(ICT) 산업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경제와 사회의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균형 뉴딜이란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지역정책 연계와 지역균형과 혁신을 말한다[9]. 마지막으로 휴먼뉴딜은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디지털과 그린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한 사람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청소년과 청년세대를 포함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9]. 정부는 2020년 7월 이후 1년간의 한국판 뉴딜 성과를 분석한 후 2021년 7월 다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하며 코로나 위기 이후 양극화 해소와, 경제 사회 구조 전환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 세계적 디지털 경쟁에 대비하여 선도적 지위 유지, 전략적 탄수증립 활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표방하며 뉴딜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창하였다[9].

새롭게 제시된 뉴딜 2.0의 주요 추진방향은 휴먼 뉴딜을 확대하는 것으로 청년층 대상의 투자와 지원인데 이들을 경제구조의 전환과 혁신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청년세대 이전의 아동과 청소년이 코로나 19가 초래한 교육과 돌봄의 격차, 문화적 불평등에서 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새로운 뉴딜 2.0 추진 방향이다. 이외에도 2020년 제시된 그린 뉴딜 외연 확대, 지역균형 뉴딜의 지속 추진 기반 확보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현재 한국정부가 다양한 차원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인다.

원래 뉴딜은 193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으로서 새로운 약속을 뜻하는 영어 New Deal을 한국어로 표기한 것이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루즈벨트 정부가 실시한 대규모의 공공정책을 의미하며 지금까지도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개념으로 뉴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뉴딜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및 변화를 넘어 기존의 구조와 체제의 개혁을 의미하는 매우 혁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매우 급진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뉴딜의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용어가 코로나 19를 겪으며 미국에서 재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등장한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부터이다. 즉 미국도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주도 종합사

회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 19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듯이 영국 역시 코로나가 초래한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Build Back Better 정신을 현재 영국 사회에 도입하여 신 뉴딜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과거 노동당 시절 사회 변화의 주역을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으로 간주하고 이미 청소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정책을 표방하였으며 이는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한 정책이었다. 이를 통해 당시 영국 정부는 국가와 사회를 혁신하고 개혁하여 발전을 시도하려고 한 것이다[2]. 노동당 정부의 청소년 뉴딜정책과 관련 사업은 2000년대 중반 보수당이 집권하며 보수당 정책에 포함되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0년 같은 보수당 정부에서 노동당 정부에서도 추구해오던 청소년과 청년 중심의 신개념 뉴딜 정책을 제시하였다[2]. 미국의 Build Back Better를 영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2020년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와 동시에 찾아온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사회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뉴딜의 개념은 미국과 영국 모두 사회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그것도 청소년과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여 소개된 사회정책이자, 진로 정책,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뉴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개혁과 변화, 성장을 의도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다소 교육 불평등 해소와 돌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과 청년으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연령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20대 중후반 청년 대상으로는 경제와 일자리 정책이 주를 이루며, 초기 청년기에 해당하는 즉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이기도 한 20대 초중반, 그리고 10대 중후반 대상의 일자리, 혹은 경제 지원책은 매우 부족하다. 이는 현재 한국이 변화무쌍한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청소년의 학교교육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다양한 역량 개발, 그리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가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청소년 뉴딜 정책을 고찰하되 영국의 노동당 정부에서 1990년대 말에 시작된 뉴딜 정책과 2000년대 중반 보수당 정부에서는 잠시 주춤했던 청소년 뉴딜이 2020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초래한 사회적 문제의 가시화와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시 뉴딜의 개념을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을 주목하였다. 왜 다시 청소년에 대한 집중 지원이 조명을 받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려고 하였고, 적극적 청소년 뉴딜 정책과 사업이 불러올 성과와 효과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에서는 학습 결손에 대한 논의는 왕성한 반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그 중에서도 진로활동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에만 머물러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에 이어 영국이 전 세계적인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포함한 미국의 Build Back Better라는 신 뉴딜 정책을 소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래 뉴딜이 의미하는 사회 부흥과 재건의 방향, 그리고 내용을 고찰하는 것은 [3] 청소년분야 한국형 뉴딜 대응 전략에 필요한 시사점과 내용을 도출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 미국과 영국이 신개념의 Build Back Better를 사용하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뉴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 뜻에 충실하되, 원래 영국의 청소년 뉴딜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 연구는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영국판 청소년 뉴딜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청소년의 미래 일자리와 미래 고용 역량 개발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소년 대상의 뉴딜 정책을 기획하고 실시한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둘째, 이를 통한 한국 뉴딜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청소년 뉴딜 정책의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영국 청소년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과 교훈은 무엇인가?

셋째, 영국 청소년 뉴딜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2.0과 휴먼 뉴딜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분석으로 이루어 졌으며 영국 정부의 공식 청소년뉴딜 정책 문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뉴딜 관련 공식 문서를 활용하였다.

II. 영국 청소년 뉴딜 정책 분석

1. 팬데믹 이전의 청소년 뉴딜

가. 실업/구직수당의 전통과 청소년 뉴딜

전술한 바와 같이 뉴딜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변화를 뛰어 넘는 혁신적인 무엇인가가 요구 될 때 등장한 개념이다. 미국이 대공황 시대를 타계하고자 제시한 것이 뉴딜이었고, 코로나 19 상황이 대공황의 시대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에서 영국과 미국은 새로운 시각에서의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펼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청소년 뉴딜은 경제 환경의 변화와 위기와 관련이 있다.

한국 역시 코로나 19 시국에서 무엇보다 큰 관심을 받는 분야는 경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위축과 소상공인의 피해, 청소년과 청년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 장벽 강화 등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위기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청소년의 성장과 진로, 고용시장으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 뉴딜을 탄생시킨 경제적 배경과 노동시장의 배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한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계획할 때 참고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대상의 특화된 뉴딜정책이 처음 도입된 1990년대 말 영국은 유례없는 최저 고용율이자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영국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변화에 따른 사람 일자리의 감소로 나타나는 유럽 전체가 경험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되었다[4]. 당시는 3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노동시장의 변화와 전산화, 자동화로 단순 노동 인력이 소멸되어감에 따라 고급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숙련 인력과 단순 업무에 적합한 고용능력으로는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청소년 대상 뉴딜 정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영국의 고용상황과 청소년 실업률을 분석해 보면 영국 18세~24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OECD평균보다 높았지만 유럽연합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 그 이유가 청소년 대상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의 결과라고 분석되었다[4]. 즉, Reencen은 영국 복지의 오랜 전통이자 자랑 중의 하나인 실업수당의 지급이 영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고, 실업수당과 구직 수당이 청소년과 청년에게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과 기술, 직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4]. 다시 말해, 청소년과 청년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수당이나 구직 지원금 같은 적극적 복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수당이나 구직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이 다른 직업으로의 탐색은 물론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원조답게 영국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청소년과 청년의 고용 증가로 이어져왔다. 1910년에 직업 알선을 위해 직업소개 네트워크(the network of the labour exchanges)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1912년 처음으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2]. 물론 이러한 수당이 처음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구직수당이 지급되던 초기만 해도 실업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해 실업자 대상 보조금 지원에 대해 거센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나태함이나 무능함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즉 영국은 제1,2차 세계대전과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으며 오히려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 직업 준비를 위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게 든다고 보았다. 그 결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물론 노동당과 보수당이 복지 수당, 즉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구직 수당이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는 있었지만 처음 구직수당이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는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대 대상의 구직 수당과 실업수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4].

물론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집권하는 영국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시기별로 보면 보수당인 마가렛 대처 정부가 구직자에 대한 혜택을 가장 적게 제공하였으며 이런 적은 지원이 경제 침체와 실업율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4].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이나 관련 지원들이 오히려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고용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은 경제적 위기와 청소년과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청소년과 청년에게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이들이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사회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영국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과 청년 대상의 구직지원금이나 고용능력 개발 수당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청소년 뉴딜정책과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양질의 취업률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당을 제공한 것은 실업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재건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던 것으로서[2] 한국의 향후 청소년과 청년 대상의 고용 및 진로 정책 수립 시에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즉, 청소년과 청년이 충분히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개발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일에도 투자가 필요하며 고용지속성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한국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뉴딜의 배경

처칠 정부의 실업수당의 개념을 계승 발전시킨 청소년 뉴딜(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NDYP)은 1998년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청소년 대상 적극적 복지지원 사업이다[2]. 노동당 정부는 복지사업과 프로그램이 초래해오던 복지 의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복지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해 welfare-to-work(복지에서 노동으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자칫 의존적이게 되는 무조건적 퍼주는 식의 복지가 아니라 근로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복지와 근로와 복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뉴딜 사업이 제안되었다. 기존에 조건 없이 장기 실업수당을 받고 있던 18세에서 24세 청소년과 청년이 의무적으로 뉴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장기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다소 파격적인 정책이기도 하였다. 청소년 뉴딜의 대상은 한국 상황에서 적용하면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9세-24세)이자, 청년기본법상의 청년(19세-34세)으로 한국

의 청소년과 청년이 모두 해당된다.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과 청년의 복지 의존을 감소시키고 자기의 삶을 책임 있게 영위하고 준비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직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복지국가 건설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청소년 뉴딜 정책이다[1]. 물론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기여라는 거대 담론 이면에는 복지 예산의 낭비를 줄여서 정부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서 무조건적 복지 지원을 지향하는 관점에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뉴딜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중요한 직업탐색의 기회와 경험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즉 뉴딜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일(근로) 경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훈련, 진로상담과 같은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여 성인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었다. 직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진로정체성을 찾아주고 고용을 위한 고용역량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이 원하는 준비된 구직자가 되도록 지원하였다[2]. 특히 청소년 뉴딜정책의 핵심은 영국 청소년과 청년 대상 진로실태 조사를 통해 직업기초 능력인 기초 문해와 수학능력의 부족, 약물 중독과 약물 의존, 범죄경력, 가출이나 노숙, 정신적 문제나 행동 장애, 신체적 장애, 책임감 결여 등이 고용의 장애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술과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다[2]. 한국은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지원이나 구직활동 지원보다는 학업과 진학을 위한 공교육 안에서의 학습지원이 대부분이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조차 한국형 뉴딜 정책은 청소년의 학습격차 해소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한 것만 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소년 대상의 진로나 직업관련 지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부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그 주요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학업 외에도 다양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로와 직업에 관한 지원이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로에 관한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여러 층위에서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 뉴딜정책은 1998년 1월 시범사업으로 소개되었던 'pathfinder'의 확장형으로 당시 12만 명의 18세-24세 청소년 장기실업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매월 만 5천명~2만 명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었으며 청소년의 개인적 진로 발달은 물론 청소년이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자 정책이었다[1]. 단순히 청소년이 본인의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은 2015년 개정된 시민교육과정의 하위 목표인 경제능력 개발과 주요 내용이기도 한 것으로 진로지도는 단순히 광의의 시민교육의 영역 안에도 포함될 수 있다[6]

물론 뉴딜프로그램이 시작된 1999년 7월에는 일시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증가하기도 하

였지만 2~3년이 지난 후에는 절반으로 대상 청소년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40%에 이르는 청소년은 자립할 수 있는 직업 구직에도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 그러므로 복지수당의 지급을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수당이 실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초기에는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실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급여 지원을 받으며 개인이 직업기초 능력과 고용역량을 개발한 후에 오히려 복지 의존을 탈피하며 독립되고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에의 초기 투자는 오히려 복지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수당 혹은 구직수당, 더 나아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예산 낭비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오히려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뉴딜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단순히 세대 분절적인 관점에서 청소년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되,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 뉴딜은 성인대상의 뉴딜 정책의 일부로서 기존 성인대상 노동시장에 적용되던 목적을 계승하여 고용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과 사회적 배제를 감소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청소년뉴딜 정책은 무한경쟁을 야기하는 개방 시장경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은 가졌으나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구직자에게 직업적 기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안된 사업이자 복지 프로그램이다.

다. 생애 주기별 뉴딜 프로그램의 내용

본래 청소년 뉴딜은 6가지 신(new)뉴딜 프로그램의 일부로 고안되었다. 각각의 6가지 신뉴딜 프로그램의 시작 시기와 예산은 조금씩 다르지만 영국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노동당 정부의 고용확대와 경기성장을 위한 국가주도 적극적 복지 프로그램이자 경제부흥 프로그램이다. 또, 청소년뉴딜 사업만이 별도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본래 뉴딜은 아래의 세대 통합적 뉴딜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것이어서 뉴딜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대별 사업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다시 말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뉴딜은 청소년 세대의 부흥과 고용역량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의 개혁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전 세대의 필요에 맞게 지원정책과 내용이 각각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형 뉴딜 2.0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한국의 뉴딜은 연령대별 혹은 생애주기별 고른 지원이라기보다는 특정 필요와 특정 주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소 청년의 일자리 확대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즉, 청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관련한 교육과 훈련의 지원이 연계되어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의 뉴딜 정책은 세대 분절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 연계성과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세대 통합적이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진 영국의 6가지 뉴딜 프로그램의 시기와 예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I-1〉 신(new) 뉴딜 프로그램 ¹⁾

프로그램명	시작 시기	1997년 ~2002년 투입 예산 (단위 : 백만 파운드)	내용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1998년 4월	1,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이상의 구직수당을 청구하는 18세~24세 청소년 대상 의무 프로그램 직업훈련, 상담, 직업탐색을 제공하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직장을 연계하거나, 진학이나 복학 지원
The New Deal 25 plus	1998년 6월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세 이상으로서 18개월 이상 구직수당을 청구하는 성인 대상의 의무 프로그램 대상이 다를 뿐, 지원 방식과 내용은 청소년 뉴딜과 비슷
The New Deal for Lone Parents	1998년 10월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가계 대출이 있는 부모 대상의 프로그램 구직활동과 구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제공하며 아동 돌봄 서비스도 제공 구직과 이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지원
The New Dea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999년 4월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을 받는 근로가능 연령대의 구직 희망자를 대상 구직을 위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The New Deal for Partners of the Unemployed	1999년 4월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이상의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배우자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특히 청소년 뉴딜 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가 해당하며, 개인의 필요에 맞춘 훈련과 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
The New Deal for People aged 50 plus	2000년 4월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본인, 혹은 배우자를 둔 사람이 대상 구직 상담 및 보조금 지원 상담 제공

1) 출처: National Audit Office(2002:32)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National Audit Office.

file:///C:/Users/User/Documents/2021%20Research/뉴딜/The%20new%20deal%20for%20%20young%20people%20202002.pdf (2021.08.22. 검색)에서 연구자가 번역하여 재구성함.

위의 표에서 보면 뉴딜 프로그램의 구성은 대상이 세대별로 나뉘어 있으며 역시 세대별 필요에 따라 다르게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은 세대별 사업이라기보다는 대표 과제별로 제시되고 있다. 2020년 10대 대표과제에서 2021년 5대 대표과제로 주제별로 제시하여 중점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5대 대표과제는 ‘디지털 초혁신’, ‘탄소중립 인프라’, ‘청년정책’, ‘4대교육향상패키지’, ‘5대돌봄격차해소’로 제시되고 있어[14] 가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 세대 대상이 아닌 특정 세대와 특정 필요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디지털 초혁신이나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은 전 세대 모두에게 해당되긴 하지만 영국처럼, 명확하게 경제나 진로지원으로 해석되기에는 다소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한국형 뉴딜은 경제중심이라기 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담론으로 해석되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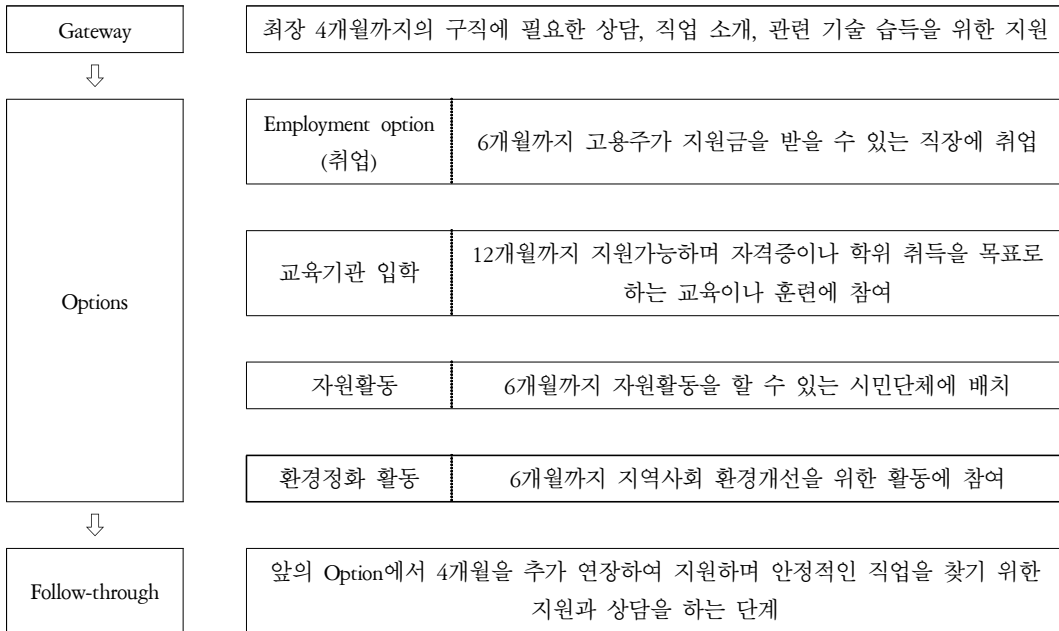
라. 청소년 뉴딜의 특징

여러 세대 중 청소년과 청년세대를 위한 뉴딜 사업과 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1]. 첫째, 실업상태인 청소년에게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고용을 위해 필요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며 직업생활에서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 지원하기 위함이다. 둘째로는 실업상태의 청소년이 장기간의 고용가능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며 이때 지속가능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고 사회적 배제를 감소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선 구직 수당을 6개월 동안 받는 청소년과 청년은 뉴딜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된다. 이전까지 구직수당 수급을 위한 선제조건이 없던 것과 달리 6개월 이상 구직수당을 받을 수 없게 하여 적극적인 진로 탐색과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Gateway에서는 직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교육이 제공되고 전문가에 의해 맞춤형 진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를 마치고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단계 이후에도 취업이나 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좀 더 강도 높은 교육과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도 진학 또는 구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평가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과 청년의 진로지도가 구직과 취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학교, 즉, 직업학교나 전문대학으로의 진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청소년의 학업중단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지도의 영역에서 학교로의 복교를 위해 검정고시 지원이나 학습 지원이 제공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세에서 24세의 구직수당 수급자와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 출소자, 이민자 중 모국어가 영어나 웨일즈어가 아닌 사람,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기초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기초 산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뉴딜 프로그램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 뉴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참가자에게는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와, 어길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하는 일종의 책임이 요구된다[2].

뉴딜 사업의 3단계는 아래와 같이 도식화 될 수 있으며 단계별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2],[4].²⁾



(그림 II-1) 뉴딜 사업 단계

1) The Gateway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뉴딜 사업의 첫 단계는 'The Gateway'이다.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사(Personal Adviser:이하 PA)와 매칭이 되어 고용역량 개발과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The Gateway는 최대로 4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상담과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구직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된다[2]. PA가 청소년이 구직을 할 만큼의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집중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을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이 취업준비가 부족한 경우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참가자 대상 개인 맞춤형 진로지도 혹은 구직활동이 이루어진다. 직업기초교육에는 시간 지키기, 팀워킹, 의사소통 기술 같은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소프트 기술 개발 교육이 포함되며, 참가자 누구라도 구직활동을

2) National Audit Office(2002:9-10)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National Audit Office. 에서 연구자가 번역하고 요약함.

단계에 의무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2]. 참가자들이 무사히 4개월 동안의 The Gateway 취업교육 지원 기간을 이수하게 되면 대부분 취업에 이르는 하지만 여전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PA와의 추가 상담과 지원을 통해 다음 단계인 Options 단계로 이관된다[4].

2) Options

두 번째 단계인 Options는 청소년의 개인적 능력, 준비도, 희망에 따라 현장 실습을 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4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있는데 우선, 여전히 구직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회사나 사업체로의 취업이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 option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최장 6주까지 일주일에 6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체에는 추가적으로 750파운드를 지급하여 청소년에게 업무관련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때 훈련관련 내용은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일주일에 1회 정도 참여하는 것이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취업이 아닌 경우, 정규학교를 포함하여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다. 직업기초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주요 참가 대상으로 최대 12개월이 지원되며 이때 입학하는 학교는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때에도 역시 청소년에게 구직수당이 계속 지급이 되어 청소년이 가지는 생활비나 교육비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다.

취업이나 직업학교 진학도 어렵다면 시민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직업기초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다[2],[4]. 최대 6개월까지 자원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단체에서 청소년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기초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역시 구직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참여한다면 400파운드를 장학금으로 받게 된다[2],[4].

Options의 마지막 선택지는 청소년이 지역사회 환경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고용역량을 개선하는 것으로 한국의 노인대상의 환경 공공근로와도 비슷하다.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개선에 기여하고, 더불어 자신의 고용역량을 개발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받게되는 보수와 지원금은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된다 [2],[4].

3) Follow-through

앞의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취업하지 못했거나 혹은 여러 이유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Follow-through이다[2],[4].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단계는 이전의 단계에서 습득한 기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정된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한다. 최소 4개월 이상 실시되며, 여전히 참여 청소년에게는 구직수당이 제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

우 6개월의 추가지원이 있으며, 이를 모두 이수한 이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첫 번째 단계인 Gateway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2],[4].

이상의 모든 단계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첫째, PA의 역할, 즉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로 이 인력은 직업상담사 이상의 전문 진로지도자로서 참가자의 다양한 요구분석과 기초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청소년대상의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4]. 두 번째로 모든 단계의 프로그램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다. 즉,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는 지원의 효과성 측정과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2],[4]. 세 번째의 공통점은 모든 단계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매우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인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프로그램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공통점은 모든 단계에서 청소년이 충분히 자신의 진로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소년의 직업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도포기자 혹은 미수료자에 대한 지원이다. 청소년이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적극적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복지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고용역량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2. 팬데믹 이후의 뉴딜정책의 배경과 내용

가. 새로운 뉴딜로서 Build Back Better 개념 등장

2021년 기준 영국의 Build Back Better 정책은 보수당 정부의 국가 재건 정책으로 노동당 정부가 추구했던 뉴딜정책의 경제개혁과 사회 혁신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런던시의 2021년 코로나 이후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런던 청소년 뉴딜정책으로 이 사업을 연관시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13]. 원래 Build Back Better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지만 2020년 6월 30일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을 재건하고 경제적 회복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뉴딜정책으로서 Build Back Better를 표방하였다[9]. 유럽연합 탈퇴가 불러온 다양한 문제는 물론 2020년을 기준으로 30여 년간 지속되던 경제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Build Back Better이며[3], 노동당 정부의 뉴딜정책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라고 평가된다. 물론 Build Back Better라는 국가 재건의 개념이 미국에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Covid-19이라는 사상초유의 팬데믹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새로운 사회와 국가의 재건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Building Back Better는 재난과 위기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 국민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국가와 사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으로 원래 이 표현은 2015년 유엔의 제3차 재난위기감소 컨퍼런스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2020년에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10]. 2021년 Build Back Better는 한국도 처음으로 참여한 G7 정상 회담에서 공동의제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즉, 국가차원의 Build Back Better가 아닌 전 세계 차원의 팬데믹 이후 지구 재건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약속으로 'Build Back Better World'라는 개념을 강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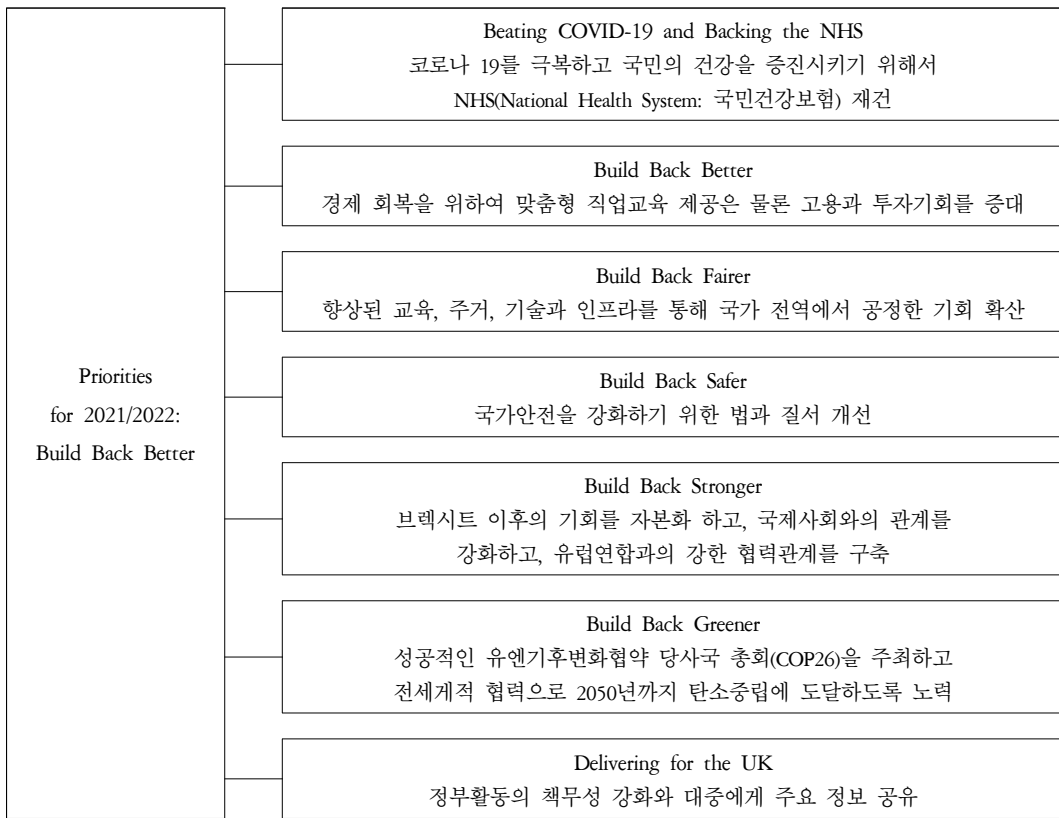
여기서 신 뉴딜정책으로 이해되는 전 세계를 위한 Build Back Better World의 목적은 질 높은 공동 협력 인프라 구축, 민간 투자 확대, 기후위기 공동 대응, 보건 증진, 디지털 테크노놀로지 확대, 성평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다[10]. 그러므로 Build Back Better는 미국의 과거 뉴딜 정책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조를 위한 재건 정책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노동당 정부의 뉴딜정책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영국을 포함한 한국도 뉴딜과 Build Back Better개념에 전 세계의 협력과 공존의 개념을 초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뉴딜 2.0이 지향하는 바와도 같다.

나. Build Back Better의 구조

아래의 {그림 II-2}는 영국의 2021년 발표된 Prime Minister's Priorities for 2021/2022: Build Back Better의 구조이다[7]. 기존 노동당 정부의 청소년 뉴딜정책과 달리 보수당 정부의 Build Back Better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대상별로 정책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주제와 영역, 주요 과제별로 사업을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이중, 사업의 특성상 Build Back Better, Build Back Fairer가 청소년 대상의 사업에 해당되며 여기에 청소년과 청년 대상의 고용과 교육과 정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전 노동당 정부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Plan for Jobs' 사업으로 이것은 경제회복을 위한 고용증대와 직업기회 확대를 위한 투자이다[7]. 즉 영국의 노동시장 규모와 수준을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자는 것으로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CJRS) 지원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직업손실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7]. 다시 말해 코로나로 인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를 지원하거나 구직을 위한 지원을 증대하겠다는 것이다[7].구체적으로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는 직업센터 지원을 확대하였고 직업상담사를 이전보다 2배 확대하여 배치하였다[7].특히 직업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3개월 이상 실적이 이어지는 경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Kickstart scheme 사업이 있다[7]. 이는 총 20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들의 창업 및 구직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자 사업이다[7]. 뿐만 아니라 재취

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Restart programme(재취업)로 불리며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예산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총 29억 파운드가 책정되어 있다[7].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취업과 고용에 필요한 기초 기술 습득 및 개발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확대와, 인턴 및, 훈련 참가의 기회를 증대하며, 실습 및 견습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7]. 여기에는 현장학습, 산학연계 지원 등이 포함되어 다방면으로 고용역량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7]. 이상의 지원은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단기간 내에 고용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역량을 개발하게 하고, 일경험과 고용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7].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폭적인 직업관련 프로그램과 복지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2) Build Back Better 구조³⁾

3) 출처: <https://communication-plan.gcs.civilservice.gov.uk/our-priorities/#pm-priorities> (2021.08.28. 검색)에서 연구자가 번역하여 그림으로 구성함.

다. Build Back Better와 직업교육 개혁

청소년 대상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경제회복과 부흥을 위해 영국은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단순히 훈련의 기회제공이나 지원금이 아닌 궁극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3]. 의무교육이 끝나는 16-19세 청소년의 기술 및 직업교육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6억9천1백만 파운드를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직업교육 예산에 추가하였다. 19세 이후의 청년 및 성인 대상의 직업과 기술교육에도 역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전체 직업교육의 대대적인 개편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상급고등학교와 대학진학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어 놓고 있으며 16세 이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연간 15억 파운드를 6년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관련 시설과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그리고 팬데믹 이후 필요한 직업 및 기술교육 관련시설에 필요한 장비구축과 확보를 위해서도 8천3백만 파운드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3]. 이러한 영국정부의 방침은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팬데믹 이후 청소년과 청년세대를 위한 직업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에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IV. 영국 청소년 뉴딜 정책의 교훈과 결론

1. 영국 청소년 뉴딜 정책의 교훈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청소년 뉴딜 정책을 통해 청소년의 고용역량 강화와 취업을 지원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현재의 보수당 정부는 팬데믹과 유럽연합 탈퇴라는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uild Back Better라는 미국의 신개념 뉴딜정책을 표방하여 특히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직업교육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청소년 뉴딜정책을 시대별로 고찰하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교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을 경제회복과 부흥의 주역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보수당 정부와 이전의 노동당 정부의 접근 방법이 다르긴 해도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노동당 정부의 경우는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직접적 실업 및 구직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취업에 필요한 고용역량을 함양하게 하여 넓은 의미에서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물론 수당 지급이 효과적이기 위해 전문인력, 즉 한국의 직업상담사 같은 인력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취업에 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에 반해 현재의 보수당 정부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직접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즉, 직업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직업센터의 확충과 확대운동을 통하여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간접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이전 노동당 정부와 다른 점이다. 직업교육 개혁을 통해 관련 교육과정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을 통해 고급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보수당 정부의 청소년 관련 뉴딜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간접지원이냐가 각각의 큰 차이이며, 이는 시대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절충되고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직접적 수당 지원도 늘려야 할 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 구축도 동시에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는 청년의 자립과 주거안정, 자산형성, 청년대학 등록금 완화와 관련된 정책이 주로 제시되어 있어, 영국의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과는 매우 다르다. 청소년과 청년의 자립과 주거안정에 앞서는 것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직업 관련 교육기회 확대와 이를 위한 투자인데 이런 점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는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더욱이 이마저도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20세 이후 청년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고등학교의 연령에 해당하는 10대 청소년을 위해서는 직업과 고용, 관련 뉴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판 뉴딜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취약계층, 학습 결손을 경험하는 청소년 대상의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처음으로 유엔에 의해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코로나 관련 방역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학습격차 완화에 관한 투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팬데믹 이후 변화하게 될 사회에 대한 충분한 준비라고 할 수 없다. 청소년의 다양한 고용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교육 및 관련한 자기이해, 탐색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 교육기회의 제공도 반드시 뉴딜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판 휴먼 뉴딜의 방향

영국 노동당 정부와 보수당 정부의 청소년 뉴딜 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판 휴먼 뉴딜의 방향과 과제를 제언하면 같다.

첫째, 휴먼 뉴딜이건, 청소년 뉴딜이건 지속가능한 청소년 뉴딜사업이어야 한다. 영국은 노동당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여 정권이 바뀐 보수당 정부에서도 비록 다른 이름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뉴딜 정책의 정신을 계승하여 청소년 대상 전폭적인 경제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현과 효과성을 위해서는 그 이념과 가치가 계승되고 지속되는 것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국 청소년 뉴딜은 전 세대를 위한 지원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즉, 25세 플러스 뉴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과 청년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개인의 직업을 이직하거나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필요한 개인 누구라도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구직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확대되고 다각화 될 필요가 있다. 이때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직업상담사 같은 전문 인력의 확대 배치를 위해 구직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도 관련 직업과 고용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실업수당의 경우 여러 제한이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물론 이런 지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보수당 정부의 Build Back Better에서도 구직활동을 위한 청장년 세대 모두에게 구직 기회 확대와 기초 직업교육 실시, 직업교육 예산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과 인프라 확충에도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팬데믹 이후의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직업과 고용능력 개발에 필요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영국 청소년뉴딜은 기존에 조건 없이 제공하던 구직수당의 남용과 복지의존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직수당을 청구하는 조건으로 직업훈련, 교육 등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무조건적인 복지가 초래할 수 있는 복지의존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실업수당, 청년수당 같은 복지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이 경제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을 시민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복지 수당에 대한 공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경제적 관점에서의 시민교육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복지제도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뉴딜 정책은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 재건과 부흥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통합적 관점과 생애 주기적 시각에서 모두가 다양한 역량과 창의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판 뉴딜 2.0에는 청소년에 학업 지원 외에도 진로와 경제 관련 교육의 기회가 포함되어야 하고, 청년 세대에게도 일자리와 주거 안정 외에 진로탐색과 사회적 책무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청년 이후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여러 층위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안정적인 경제 개혁과 사회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Beale, Ian., Bloss, Claire., &Thomas, Andrew. (2008). The Longer-term impact of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 Bourn, John (2002).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National Audit Office.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3. HM Treasury (2021).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 Her Majesty Stationery Office.
4. National Audit Office (2002:9).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National Audit Office.
5. Reeneen, John Van (2004).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the British New Deal for the Young Unemployed in Contex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Citizenship programmes of study: key stages 3 and 4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7. <https://communication-plan.gcs.civilservice.gov.uk/our-priorities/#pm-priorities>
8. <https://www.gov.uk/government/news/pm-a-new-deal-for-britain>
9. <https://www.local.gov.uk/publications/build-back-local-building-back-better#children-and-young-people>
10. https://en.wikipedia.org/wiki/Building_Back_Better
11.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8C%80%EC%9D%BC%EB%A1%9C>
12. <https://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Mean.do>
13. <https://www.london.gov.uk/coronavirus/londons-recovery-coronavirus-crisis/recovery-context/new-deal-young-people>
14. <https://www.knewdeal.go.kr/front/view/task13.do>